

3. 반려동물 식품시장에도 한류 바람을 불어넣자

홍콩지사

주요내용

▶ 전 세계적으로 성황을 이루는 반려동물 시장

-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뷰티샵, 카페부터 애견신문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홍콩에서도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 노령화, 핵가족화, 독신자증가 등의 사회 현상이 맞물리면서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홍콩의 주요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 홍콩의 반려동물 식품시장 현황

- 홍콩의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매년 약 5.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매출은 약 147억만 달러(한화 약 1,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인당 연간 약 19.73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약 8kg 정도의 반려동물 식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반려동물 식품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2018년 매출액은 약 28,662억만 달러(한화 약 30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반려동물 식품시장 트렌드

- 반려동물 식품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불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나 건강보조제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웰빙산업이 연 8.6%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한편 2016년 기준으로 홍콩무역발전국(HKTDC) 통계에 의하면 홍콩의 동물사료용 조제품 수입액은 138억만 달러(한화 약 1,473억원)로 2015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홍콩으로 사료용 조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2016년 기준 미국으로 홍콩 전체 수입액의 약 39.3%를 점유하고 있다. 뒤이어 태국과 캐나다가 각각 10.6%,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0.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홍콩무역발전국(HKTDC)

· 글로벌경제신문, 「홍콩, '반려동물용품 시장' 폭풍 성장 중」 (2018.1.11.)

· South China Morning Post, 「Real Pet Food feeds Asia's rising demand for high-quality pet food」(2017.9.22)

시사점

- 홍콩은 수입관세가 없고 반려동물 식품을 규제하는 법도 없어 시장진출이 용이한 국가이다. 반려동물 식품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한국은 반려동물 식품 원료가 되는 양질의 농수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선 홍콩 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산 반려동물 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뒤이어 반려동물 식품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진출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